인문논총 제74권 제4호 (2017.11.30), pp. 97~142
[DOI] http://10.17326/jhsnu.74.4.201711.97

혁명, 혹은 배반의 유토피아*

—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에 나타난 정치적 무의식

최 진 석**

[초 록]

보그다노프의 소설 『붉은 별』은 흔히 사회주의 유토피아 문학의 대표작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화성은 미래 사회주의의 이상향을 상징하고, 주인공의 여행은 발달된 미래의 과학기술을 배우고 돌아오는 모험의 여정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서사적 구조는 낙관주의로 가득한 유토피아 문학의 일반 형식과는 사뭇 다른데, 주인공은 미래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실패하고, 정신착란에 빠져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낯선 발상의 원인을 작품의 창작배경과 결부시켜 이해해야 한다. 즉, 『붉은 별』은 레닌의 혁명론에 대한 안티테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볼셰비키식 혁명은 결국 파국에 도달할 것이란 보그다노프의 항의를 담는다는 점에서 은폐된 논쟁에 가깝다. 하지만 보그다노프의 사적 복수전 이상으로 우리는 이 작품을 독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주제어: 보그다노프, 레닌, 볼셰비키, 붉은 별, 유토피아, 정치적 무의식, 서사화
Bogdanov, Lenin, Bolshevik, Red Star, Utopia,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ization

해해야 한다. 즉 여기서 미래의 유토피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으로 제시됨으로써 혁명가 보그다노프의 욕망마저도 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무의식의 역설적 양상들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이 소설이 어떻게 유토피아적 미래를 다시 불러내는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1. 유토피아와 혁명의 문학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욕망은 지상적 삶의 본래적 조건이다. 당장의 현실과 화합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은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향해 투사되고, 종종 환상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표현되어 왔다. 그것은 무의식적 정동(affect)을 통해 배태된 사유의 이미지로서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담론으로 진술되곤 했다. 덕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비롯되어 이상적 사회의 가능성과 조건을 문답했던 플라톤의 『국가』(Politeia)가 그랬고, 지상의 왕국에 대비되는 신의 왕국을 서술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De civitate Dei)도 그 계보에 정당히 포함될 것이다. 중세 말기를 휩쓸었던 천년왕국운동의 다양한 익명적 비전들 역시 환상의 형태로 표출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1] 우리는 이 모두에 '유토피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또한 유토피아는 지극히 근대적인 장르의 명칭이다. 철인통치나 섭리의 임재, 대중의 직접적 봉기가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행위를 환상적 비전 속에 투사하는 문학적 대응으로서 유토피아는 근대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세속적 공동체를 향한 열망과 인간의 실천적 역량에 대한 믿음이 문학적 글쓰기를 고유한 표현의 형식으로 삼아 등장한 것은 근대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2]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수놓은 이

1) N. 콘(1993), 김승환 역, 『천년왕국운동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ch. 1.

른바 '유토피아 서사 장르'를 떠올려 보라. 토마스 모어의『유토피아』(Utopia, 1516)나 톰마소 캄파넬라의『태양의 도시』(Civitas Solis, 1602), 프랜시스 베이컨의『새로운 아틀란티스』(The New Atlantis, 1627) 등은 부재하는 이상향을 역사의 평행공간에 배치하여 미래 사회의 비전을 탐구하고 예시한 문학작품들이다. 이상향이 주제이자 소재, 사상의 단초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16세기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근대 유토피아 문학의 출발점이라 표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유토피아 문학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행기 영국의 사회적 문제였던 인클로저 현상을 신랄하게 풍자했고, 캄파넬라나 베이컨 역시 현실 너머의 대안적 세계를 묘사함으로써 당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질타하고자 했다.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되 계급적으로 분별된 보수적 질서를 노정한 플라톤이나 신학적 계시에 따른 구속사(救贖史)만을 유일하게 가능한 미래로 상정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근대의 문학적 비판은 절대적 평등과 세속적 낙원의 도래를 예기함으로써 혁명의 문제설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랑시에르적 구분을 빌어 말한다면, 근대 유토피아 문학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서사적 역동화에 값한다고 할 만하다. 인쇄매체의 발달과 문자의 조형력이 결합하여 등장한 근대 문학은 근대성의 진보적 흐름을 견인하는 표상장치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이렇듯 유토피아와 정치적인 것, 혁명의 연결고리를 문학적 서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상상적 투사로서 유토피아 문학의 거대한 변곡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기점으로 정점에 오른다.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의 탄탄한 지반으로부터 글쓰기의 형식과 구성, 풍부한 사상적 원류를 공급받은 20세기 러시아 문학은 혁명을 향한 길목에서 폭발적인 잠재력을 노출시켰다. 물론, 혁명기 문학이 그 자체로 유토피아적 주제와 형상으로 충만해 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혁명과 문학'이라는 논제를 받아

2) 임철규(2009),『왜 유토피아인가』, 서울: 한길사, pp. 19-20.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의『무엇을 할 것인가?』(1863)나 막심 고리키의『어머니』(1906), 혹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붉은 사랑』(1923) 등을 떠올릴 것이다. 확실히 우리는 사회주의적 혁명문학의 정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3] 그 목록에 '다른 시간'이자 '다른 장소'에 대한 욕망으로서 유토피아라는 주제를 온전히 구현하고 있는 작품들은 드문 편이다. 사회주의적 미래와 환상적 서사를 결합한 작품들은 꽤 오랫동안 소비에트 문학의 주류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알다시피 이는 '사실주의'에 과대한 의미를 부여하던 소비에트 평단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의『붉은 별』은 대단히 예외적인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유토피아 문학의 구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주의와 서사적 환상을 소설 속에 골고루 배합함으로써 혁명과 문학이라는 논제에 대단히 잘 부응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이다. 보그다노프의 다른 저술들과 달리『붉은 별』은 소비에트 시대 내내 대중들 사이에서 즐겨 읽히는 소설이었고, 지금도 현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SF의 고전으로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중이다. 하지만 정말 이 소설이 유토피아의 문제의식에 공명하며, 사회주의와 환상을 통해 혁명의 대의에 부합하는 작품인지는 불명확하다. 본

3) 사실 본격적인 '혁명문학'은 볼셰비키 정권이 안정화에 접어든 1920년대 무렵부터 가시화되었고, 1932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천명되면서 공식적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듯하다. 1917년 이전의 문학은 전 세기의 상징주의나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문학이 혁명의 이름으로 예술과 사회의 변혁을 타진하고 있었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계급문학 혹은 볼셰비즘적 사상으로 무장한 문학작품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영미권이나 소비에트 연구자들이 혁명기 문학을 개괄하면서 통상 19세기적 흐름과 접목시키는 동시에 스탈린 시대의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와 다르지 않다. 물론, 소비에트 비평의 경우 19세기의 '혁명적 민주주의'를 이어붙임으로써 혁명문학의 유장한 흐름을 확대・완성시키려는 의지가 더 높았던 편이다. G. G. Elizavetina (ed)(1986), *Revoliutsionnye demokraty i russkaia literatura XIX veka*, M.: Nauka; R. Freeborn (1982), *The Russian Revolutionary Novel. Turgenev to Pasterna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문에서 제기될 몇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 작품을 기존의 독법과는 상이한 관점에서 해석할 근거를 얻게 된다.

2. 『붉은 별』은 볼셰비키적 유토피아 소설인가?

명확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으로서 사회주의라는 요소를 빼거나 완화시켜서 이해하면, 1905년과 1917년의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러시아는 오랫동안 유토피아라는 문학적 꿈을 꾸고 있었다. 예컨대 19세기 중반의 낭만주의 소설가였던 블라디미르 오도예프스키는 『4338년』(1840)을 집필하여 미래 사회의 이상적 모습을 그려낸 바 있고, 체르니셰프스키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사회주의적 협력으로 구현될 미래의 공동체를 꿈꾼 바 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블라디미르 타네예프의 『미래의 공산주의 국가』(1879)나 레오니드 보고야블렌스키(필명 L. B. 아파나시예프)의 『화성으로의 여행』(1901)은 지구 밖 행성으로의 개척적 식민주의를 다룬 본격 SF문학의 효시라 할 만하다. '정통' 러시아 문학사의 기술을 다소 비껴가는 이 작품들이야말로 유토피아 문학사의 전통에는 더욱 가까울 수 있다는 진단을 기억해 두자.[4] 한편, 디스토피아 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인 예브게니 자먀친의 『우리들』(1920)과 그 선조격인 니콜라이 표도로프의 『2217년 저녁』(1906)도 빠질 수 없다.[5] 알다

4) 1980년대에 과학아카데미가 편찬한 전 4권의 『러시아 문학사』에는 유토피아 문학에 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체르니셰프스키의 소설조차 혁명적 사회주의 문학의 예시로만 소개될 뿐 '유토피아적'이란 표현에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다. F. Ia. Priiman (ed)(1982), *Istoriia russkoi literatury*, T. 3, Leningrad: Nauka, pp. 60-66. 물론 이는 엥겔스가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을 공산주의와는 동떨어진 몽상가들로 치부했던 탓이 클 것이다.

5) 여기 언급한 작품의 일부를 실은 선집이 V. Shestakov (ed)(1990), *Vecher v 2217 godu*, M.: Progress로 출판된 바 있다. 소비에트 시대가 저물기 직전에 출판된 선집인데, 표도로프(1829-1903)에서 시작하여 발레리 브류소프(1873-1924)와 보그다노

시피 표도로프는 러시아 불멸주의 사상과 우주론의 대표자로서 동시대인들로부터도 기인(奇人) 취급을 받았던 사상가였지만 러시아 문학과 볼셰비즘의 숨은 원류의 하나로서 평가되는 형편이다.[6] 그런 의미에서 환상적 서사와 공상적 미래에 호기심을 던졌던 이 작품들이 혁명에 대한 열망과 전혀 무관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듯하다.

뜻밖에도, 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독서대중을 사로잡았던 작가는 외국인이었다. 에드워드 벨라미가 바로 그였다. 『뒤돌아보며』(1888)는 1891년 첫 러시아어 번역본이 출간되었고, 1918년까지 이 책은 일곱 차례나 재번역되어 5만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 수치는 당시 유럽의 후진 지역이자 문맹율이 전체 국민의 80퍼센트에 육박하던 러시아에서 유토피아적 주제의 흡인력이 엄청났음을 반증해 준다. 볼셰비키조차 그의 작품을 '과학적 사회주의를 생생하게 묘사한 최초의 소설'이라 격찬했고,[7] 이후 소비에트-러시아에서 SF문학을 집필하려는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벨라미의 작품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8] 보그다노프 역시 이로부터 예외는 아니었을 성싶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이 사실로부터 약간의 간극을 두고 예각화

프, 야콥 오쿠네프(1882-1932), 자먀친(1884-1937), 알렉산드르 차야노프(1888-1937)를 거쳐 블라디미르 보이노비치(1932-)까지 '공상적' 사회상을 다룬 소설 전편 혹은 일부를 싣고 있다. 소략하게 구성된 선집이지만, 소비에트 말기의 완화된 관심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6) J. 그레이(2012), 『불멸화 위원회. 유령과 볼셰비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이상한 시도』, 이후, pp. 184-187. 표도로프의 제자 레오니드 크라신은 혈액병을 앓고 있다가 보그다노프의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되지 못한 채 1926년 사망했다. 간접적으로나마 표도로프와 보그다노프의 연결고리는 존재하는 셈이다.

7) R. Stites (1989), *Revolutionary Dreams. Utopian Vision and Experimental Life in the Russian Revolu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32-33.

8) 엄밀한 의미에서 SF와 유토피아, 환상은 과학성과 미래 전망, 비현실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동일하지 않은 문학적 요소들로 거론되지만, 우리의 주안점은 『붉은 별』의 장르적 특성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재현과 무의식이란 문제에 놓여 있기에 여기서는 큰 구별을 두지 않겠다.

되어야 한다. 『뒤돌아보며』는 확실히 볼셰비키의 공식적 지지를 이끌어 낼 정도로 사회주의에 친화적이었다. 그렇다면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 역시 유사한 특징을 지녔기에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1908년 『붉은 별』을 출판하고, 1912년 『엔지니어 메니』를 내놓은 이후로는 별다른 창작활동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문학에 대한 보그다노프의 욕망은 그리 크지 않았던 듯싶다. 또는 1917년을 향하는 러시아 국내의 긴박한 정세에서 '한가하게' 창작에 몰두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고, 철학과 정치, 경제의 다방면에 걸쳐 집필에 몰두하던 당시의 그에게 소설은 당장의 현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는 작품이 문학사적 문제의식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얼마간 드러난다. 보그다노프의 소설이 비평적으로 심도있는 평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유토피아 계열의 문학이 갖는 특성상 이 작품들은 계몽적이고 교훈적이며 예시적인 서술로 일관해 있다는 평가가 주종을 이루었다. 간단히 말해 '신기하기는 하지만 문학적 의미는 없는' 작품이라는 말이다. 이런 평가는 그나마 나은 것으로서, 대개의 주류 문학과 비평은 보그다노프의 작품들을 대중용 오락소설로 치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잘해야 SF적 환상문학의 계보에 넣어 분류하는 정도였다.[9]

하지만 문학장 바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서술에서도 『붉은 별』은 자주 누락되거나 '한줄 언급' 정도로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엔지니어 메니』는 거명조차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그다노프의 소설은 사회사와 문화사적 기술 속에 자주 등장하며, '볼셰비키의 유토피아 과학소설'과 같은 식의 총평을 통해 그 의의를 '요약당해' 버리는 형편이다.[10] 문학사적으로는 홀대받았어도 사회문화적으로는 작지 않은 족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써 문학사의 새로운 서술이 가능해지는 일이 없지는

9) 혁명기 러시아 대중들에게 이 소설이 갖는 재미의 큰 비중은 미래에 대한 '과학적' 상상력의 묘사에 두어져 있었다. 이득재(2017), 「『붉은 별』에 나타난 보그다노프의 사회주의 이론」, 『중소연구』 40(4), pp. 323-329.

10) R. 스타이츠(2008), 김남섭 역, 『러시아의 민중문화』, 서울: 한울, pp. 54-55.

않다. 하지만 보그다노프 시대의 독자대중이 『붉은 별』에 얼마나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든지 간에, 현대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소설이 흥미만점의 흥행성 있는 작품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리 시대의 창작과 비평이란 관점에서 보기에 이 작품은 산만한 구성과 지루한 서술, 철학적 성찰에 대한 불분명한 몰두 등의 단점이 너무 많이 나타나며, 갑작스런 결말이 빚어내는 미완결성으로 인해 독서의 흥미를 반감시키는 형편이다.[11] 더구나 화성에 건설된 미래 사회라는 설정은 충분히 유토피아적이지만, 이 소설의 유토피아적 성격은 고전적 유토피아 문학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편이다. 즉, 유토피아 문학의 근대적 전통에 귀속시키기에 『붉은 별』은 너무나 예외적이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작품은 액자소설 구조를 갖는데, 당대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가 바깥 이야기를 이룬다면, 그가 우연히 만난 이방인의 놀라운 체험이 안쪽 이야기를 구성한다. 유토피아 방문기가 그것인 바, 이 이야기가 허황된 망상과 다른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환상을 전시하기 때문이다. 즉 유토피아는 노동과 군사, 정치와 행정, 경제와 의식주, 가족과 생활습관 등을 통해 당대 현실을 상회하는 대안적 사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몽상을 넘어선다. 작가나 작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토피아적 상상력은 현실 너머의 시공간으로부터 이상화된 공동체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탄탄한 사회문학적 구조를 갖는다.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해도, 오히려 그런 점들로 인해 유토피아 문학은 하나의 계보를 이루며, 사회혁명의 청사진으로

11) 미국 아마존에 올라온 서평들 가운데 높은 별점은 이 작품의 '역사적 가치'를 상찬하는 독자들의 것이고, 낮은 별점은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재미없고 식상하다고 느낀 독자들이 준 것이다. 보그다노프가 창작의 기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아마추어 작가라는 점과 더불어, 현대 독자들이 혁명기 러시아의 독자들보다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독서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초반의 러시아 독자들에게 『붉은 별』은 충분히 흥미로운 작품이었을지 모른다. 문제는 그것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인지, 혹은 그 밖의 다른 요소 때문인지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점에 있다.

기능했던 것이다. 형식적으로 『붉은 별』은 전형적인 유토피아 계열에 속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적지 않다. 후자는 오히려 소설의 유토피아적 특성을 부정하거나 해체하는 데 기여할 지경이다.

한 가지만 먼저 지적한다면, 『붉은 별』에서 환상의 기능을 문제삼을 만하다. 이 소설에서 화성이라는 가상의 세계는 환상의 도입으로 간주된다. 화성인들의 발달된 과학기술이나 문명적 구조도 모두 화성이라는 환상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개연성을 갖는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것은 작품의 결말을 맺는 방식으로서의 환상이다. 자폐적 공황에 빠져 지구로 돌아온 주인공은 자신의 화성에 다녀왔음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 그가 망상증에 빠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개의 유토피아 문학은 주인공이 체험한 신세계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가 지극히 정상적인 정신상태라는 것을 전제한 채 이야기를 전개하고 결말을 맺게 마련이다. 하지만 화자로서의 주인공이 착란에 빠져 있다면, 그가 다녀온 신세계는 전혀 증명할 수 없고 그의 체험은 신뢰하기 어려운 망상의 소산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유토피아적 설정의 자폭수가 되는 셈이다. 도대체 보그다노프는 왜 그렇게 자기 작품을 허술하게 방치해 둔 것일까? 여기엔 혹시 어떤 의도가 개입해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것이 이 소설에 대한 세평, 즉 볼셰비키의 환호를 받은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문학적 표현이라는 평가를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이다.

3. 보그다노프, 레닌의 진정한 맞수

『붉은 별』은 정말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으로 창작되었으며, 그 대의를 옹호하는 작품일까? 소설의 '어설픈' 전개나 결말은 다만 비전업 작가의 무지에서 비롯된 작은 흠결일 뿐일까? 이 질문들이 흥미

롭게 다가오는 까닭은 보그다노프가 본연의 문학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정치가이자 혁명가,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철학자라고 생각했으며, 문학은 자신의 창조적 지성을 확장해 본 실험적 시도였을 뿐이다. 우리가 그의 작품을 정치적 논쟁이라는 구도 위에서 검토하고,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해석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컨대 『붉은 별』은 보그다노프의 사상체계 및 그의 정치적 이력과의 관련 속에서 해독되어야 한다. 그가 이 소설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이력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자.[12]

본명이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말리노프스키인 보그다노프는 1873년 모스크바 남부의 툴라에서 태어났다. 이 시대의 다른 혁명가들과 달랐던 점이라면 그가 소년기부터 자연과학과 의학적 지식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보그다노프는 1892년 모스크바 대학의 물리수학부 자연계열에 진학한 후 사회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제적되었고, 1895년 하리코프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했다. 1899년 졸업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하자마자 비밀경찰에 체포된 그는 칼루가와 볼고그다로 유형을 가게 되는데, 전공을 십분 활용해 유형지의 정신의학 클리닉에서 의사로서 일한 경력도 있다. 한편, 대학시절 처음으로 맑스주의를 접했던 보그다노프는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지향하는 야심찬 연구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전공인 의학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철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맑스주와의 자연과학을 통합하는 과제를 자신의 학문적 목표로 삼을 정도였다.[13] 특히 19세기 말 유럽의 맑스주의가 강단철학화되면서 추상적인 이론 논쟁에 몰두하는 데 반감을 가졌던 그는 자연과학적 실증성을

12) Z. Sochor (1988), *Revolution and Culture. The Bogdanov-Lenin Controvers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6-12.

13) 1925년의 자서전에서 보그다노프는 자신의 연구과제를 정치경제학과 역사유물론, 철학, 조직학, 프롤레타리아 문화론의 다섯 가지로 종합 정리해 놓았다. J. Biggart et al. (ed)(1998), *Alexander Bogdanov and the Origins of Systems Thinking in Russia*, Aldershot: Ashgate, p. 13.

정치사상과 혁명운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단단한 신조를 갖게 된다. 학업과 운동, 유형의 복잡한 경로를 거치면서도 당대의 지식인들과 널리 교우하는 한편으로 꾸준히 논문과 저작을 발표하면서, 보그다노프는 러시아 지식사회에서 일찍부터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보그다노프'는 대학에서 사회운동을 할 때 사용했던 필명의 하나였다. 졸업논문 이후 첫 번째 저작은 1897년에 나온 『경제학 단기 과정』으로서 함께 활동하던 노동자들의 조언을 구하며 집필한 것이었다. 이 책은 1917년 혁명 이후에도 중쇄를 거듭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고,[14] 레닌이 "우리의 경제학 문헌 가운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15] 그 외에 『역사적 관점에서 본 인식』(1901), 『사회심리학』(1904), 『새로운 세계』(1905) 등을 꾸준히 펴내며 저자로서의 이름을 굳건히 다져갔다. 1904년 유형에서 풀려난 후 스위스로 가서는 『경험일원론』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1906년까지 총 3부로 이어지며 완성된 초기 보그다노프의 대표작이다. 유럽의 고전적 인식론과 당대의 최신 이론을 결합시켜 자기만의 색깔로 체계화한 이론적 결과물이었으나, 레닌과의 결정적인 결별이 있기까지 이 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모호하게 남아 있었다. 사유와 행위의 기초로서 경험을 새로운 인식론의 기초로 제안했던 이 저작은 1905년 혁명이 좌절하게 된 어수선한 형국에서 진지하게 수용될 만한 여건에 놓여있지 않았다.[16] 1907년 레닌과 대립을 빚고,

14) A. Bogdanov (2007), *Kratkii kurs ekonomicheskoi nauki*, M.: URSS, p. 4. 소비에트 정치경제학의 발전에 보그다노프가 끼친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1920년대 신경제 정책의 지지자였던 니콜라이 부하린의 수리경제학 이론은 대개 보그다노프의 입장을 물려받은 것이었다. 김동혁(2015), 「소련 수리경제학파의 기원과 발생」, 『사총』 84, pp. 132-137.

15) V. Lenin (1946), "Retsenziia," *Sochineniia*, T. 4, M.: OGIZ, p. 32.

16) 최진석(2017), 「프롤레타리아 문화 논쟁과 마음의 정치학: 보그다노프 문화혁명론의 재구성」, 박종소 엮음, 『다시 돌아보는 러시아 혁명 100년 2』, 서울: 문학과지성사, pp. 99-105. 지식형성의 초석으로서 경험의 원리에 대한 진술은 『붉은 별』에서 화성인들에 의해 논리정연하게 설명되기도 한다.

이어 1909년『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을 통해 레닌이 보그다노프를 서유럽 실증주의의 추종자로 격하시키면서, 불행히도 이 책은 지식사회의 관심사로부터 완전히 밀려나 버렸다. 결국 1930년대에 스탈린이 1인 집권체제를 굳히고 레닌의 우상화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소비에트 문서고에서 사실상의 '금서' 취급을 받게 된다.

보그다노프의 사회적 이력에서 레닌과의 관계는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지금도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17] 이 시기의 혁명가들은 대부분 행동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활동가들이었고, 더러 레프 트로츠키나 아나톨리 루나차르스키처럼 왕성하게 저작을 쏟아내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대개는 '이론적'이라 부를 만한 저술 자체가 없었다. 그 가운데 철학적 논의를 주제로 삼아 담론을 펼쳤던 이는 레닌이 거의 유일했는데, 그의 맞수가 바로 보그다노프였던 것이다. 가장 명민했던 트로츠키조차 전략전술과 정책적 사안에서 레닌과 논쟁하고 대립했을 뿐, 사상적으로는 레닌만큼 적극적으로 논변을 펼치지 않았다. 보그다노프는 트로츠키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인텔리겐치아였고, 자신만의 사회이론과 조직론, 철학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소설가로서의 문재마저 지니고 있었다. 실로 레닌과 보그다노프는 철학과 사회학, 정치경제학과 문화의 이론적 전장에서 진정한 논적이라 불릴 만했다.

1899년 보그다노프는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입당했으나 레닌과 직접 만나서 교우했을 여지는 별로 없다. 레닌이 혁명운동에 뛰어들어 다방면에서 활약하던 기간에는 보그다노프가 유형을 떠났고, 그가 돌아오기 직전인 1900년 7월에는 레닌이 국외 망명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1904년에 와서야 두 사람은 겨우 서로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 1903년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 볼셰비키와 멘셰비키가 막 분

17) 1995년 러시아에서는 보그다노프의 미공간 자료들이 대거 발굴되어 공간됨으로써 그의 사회사상 및 철학이론의 핵심적 관점뿐만 아니라 레닌과의 관계 등 베일에 쌓여있던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G. Bordjugov (ed)(1995), *Neizvestnyi Bogdanov v 3-kh knigakh*, M.: AIRO-XX.

열되었던 시기가 그때였다. 그리고 1905년 4월 25일(구력 4월 12일)에 열린 제3차 당대회는 제1차 러시아 혁명의 파도가 높게 몰아친 후의 급박해진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멘셰비키를 포함한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던 이 대회에서 보그다노프는 레닌에 동조했고, 이후 1907년의 5차 대회까지 그와 보조를 맞추면서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되기에 이른다. 서로 의기투합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증언들로 보아, 그들은 각자 비판을 자제하는 상호적 묵계 아래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던 듯하다.[18]

변화는 1905년의 1차 혁명의 성과가 점차 반동화되면서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분열이 격화되었을 때 나타났다. 우선, 국가두마를 통해 부르주의 의회주의로의 길이 열렸으니 이전과 같은 비합법 투쟁은 청산해야 한다는 멘셰비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볼셰비키 사이의 대립이 불거졌다. 다시 후자는 완전한 입헌군주제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회로부터의 완전한 철수를 주장하던 소환파와 비합법 투쟁과 합법 투쟁의 두 가지 전술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는 레닌의 주장으로 갈라졌다. 보그다노프는 소환주의에 동조했는데, 그에게 1905년 이후의 당면 과제는 일단 불붙은 혁명을 재빨리 전국적 소요와 봉기로 진작시켜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점화시키는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레닌은 소환파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진 않았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의회에 파견한 볼셰비키 의원들을 모조리 불러들여 급진적인 혁명의 대열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보그다노프의 입장은 당의 분열을 전면화할 위험이 있었다.

반전은 1907년 6월 티플리스에서 발생한 대담무쌍한 은행강도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여기에 볼셰비키가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왔고, 이에 격분한 멘셰비키의 대부 게오르기 플레하노프는 볼셰비키와 절연을

18) N. 크루프스카야(1986), 김자동 역, 『레닌의 회상』, 서울: 일월서각, pp. 170-171.

해서라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혁명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더러운 자금'이라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용적 입장이었으나, 당이 재건불가능하게 쪼개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이에 티플리스 사건을 옹호하던 보그다노프 그룹을 축출하고 당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결심한다.[19] 레닌에 의해 그는 1908년 잡지 『프롤레타리아』의 편집진에서 해임되었고, 다음 해 6월에는 볼셰비키에서도 제명당해 버린다. 당연히, 이후 레닌과 보그다노프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없었다.

정리해 보자. 1908년을 전후하여 레닌과 보그다노프의 관계는 극적인 결별과 파국을 맞이하였고, 『붉은 별』을 집필하던 시기가 그 무렵이니 작품 안에 이런 상황이 일정 정도 반영되었으리라 추론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또한 보그다노프가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문학적 욕망을 갖고 있었다 해도 그것이 레닌이나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비판과 거부의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보는 게 더욱 타당할 것이다. 요컨대, 『붉은 별』은 레닌과 볼셰비키를 향한 논쟁을 장전시킨 문학적 무기였다고 간주해야 한다.

4. 『붉은 별』과 정치적 (무)의식

4.1. 정치적 논쟁의 문학적 웅변술

다시 『붉은 별』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 보자. 도대체 보그다노프는 왜 이 소설을 쓴 것일까?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그가 『붉은 별』을 창작했

19) 물론 '형식적인' 보전이었다. 이후로도 볼셰비키와 멘셰비키의 반목은 중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그다노프의 축출을 계기로 레닌은 당내에서 볼셰비키의 목소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L. 샤피로(1982), 양흥모 역, 『소련공산당사』, 서울: 문학예술사, pp. 120-122.

던 1908년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내의 두 가지 내홍, 즉 멘셰비키와 볼셰비키의 분열 및 볼셰비키와 보그다노프 정파의 분열로 어수선했던 시기였다. 레닌과의 반목이 격화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날로 비좁아지던 격랑의 시기에 그는 왜 '한가하게' 문학창작에 재능을 쏟아 부었던 것일까? 자기를 지지해 줄 세력을 규합하거나 입장을 강화해 줄 정치적 문건을 작성하는 데 더 몰두했어야 할 시간이 아니었을까?

가장 단순한 답변은 현실의 정치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보그다노프가 자신의 혁명적 대의에 충실히 복무했다는 설명이다. 일종의 품성론적 논제인데, 과연 얼마나 가능성 있는 추측일까? 보수반동 종교사상가이자 혁명에 적대적이었던 니콜라이 베르쟈예프조차 보그다노프는 "선량하고 신실하며, 자신의 이념에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언급을 남겼음을 주목하자.[20]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어떠하든, 사회주의적 대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임무의 하나로서 보그다노프가 자기의 창작활동을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볼셰비키와의 갈등을 떠나, 기필코 도래해야 할 긍정적인 미래 사회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작업이었을 터이다. 실제로 『붉은 별』에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언표 이외에는 그 어떤 정파적 구별의 표지도 나오지 않는다. 화성은 사회주의라는 단일 이념 외에는 다른 이데올로기적 요소들로 분열되지 않은 통일된 사회로 묘사되며,[21] 이런 점이 후일 볼셰비키조차 『붉은 별』을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대변하는 작품으로 인정하도록 종용했을 것이다. 가령 후일 교육인민위원을 지낸 아나톨리 루나차르스키는 미래 사회주의 사회의 원형은 이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극찬을 퍼부은 바 있다.[22] 확실히

20) N. Berdiaev(1991), *Samopoznanie. Opyt filosofskoi avtobiografii*, M.: Kniga, p. 128.

21) 화성에서 사회주의를 형성해 온 기나긴 과정은 사실 지구의 근대 자본주의 발전사와 무척 닮아있다. 『붉은 별』의 프리퀄 작품인 『엔지니어 메니』(1912)는 이러한 전사(前史)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유토피아 문학의 범주에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어울리지 않는다. 『엔지니어 메니』는 『붉은 별』의 불완전한 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도입된 역사적 보충물의 성격을 띠기에, 우리의 논의에서는 제외시키겠다.

『붉은 별』에서 묘사된 화성은 1908년 당시 러시아가 꿈꾸던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생생하게 무대화한 이미지에 가까웠다.

그러나 명민한 활동가이자 저술가로 이름이 높던 보그다노프가 단지 혁명의 대의를 선전하기 위해 문학창작에 몰두했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가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붉은 별』에서 묘사된 화성의 발달된 과학기술은 비단 볼셰비키만의 이상이 아니었고, 벨라미의 『뒤돌아보며』가 보여주듯 사회주의적 미래 사회를 꿈꾸던 모든 혁명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유토피아 이미지였기 때문이다.[23] 작품 속에 그려진 과학기술적 이미지가 아니라, 차라리 소설의 플롯 자체에 눈길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허구와 사실을 섞고, 플롯을 통해 서사의 인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징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정 반대의 관점, 즉 볼셰비키와의 정파적 차이가 날로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보그다노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는 사회주의에 대한 순진무구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논변을 펼치기 위한 기회이자 방법으로서 문학을 활용했다고 추론하는 게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바꿔 말해, 『붉은 별』은 볼셰비즘이 미래의 유토피아를 성취하는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기 위한 보그다노프의 문학적 웅변술인 셈이다. 그는 정치적 논변이나 철학적 사변, 경제학적 도식이나 사회심리학적 서술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혁명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려 했고, 이는 우선 볼셰비키 사상이 갖는 위험과 실패를 소설적 양식으로 전시하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

22) 루나차르스키는 『붉은 별』에 대한 볼셰비키 측 최초의 리뷰를 작성했고, 보그다노프에게 꽤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R. Stites (1984), “Fantasy and Revolution. Alexander Bogdanov and the Origins of Bolshevik Science Fiction,” Alexander Bogdanov, *Red Star*, trans. Ch. Rougl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 13.

23) Sochor (1988), p. 207.

4.2. 유토피아 서사인가 심리주의 스릴러인가?

먼저 『붉은 별』의 줄거리를 개략적으로 훑어보도록 하자. 1905년 혁명 이후 날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치적 전환의 가능성이 오리무중에 갇혀 있을 때, 주인공 레오니드는 우연히 화성으로 떠날 기회를 얻게 된다. 그것은 미래 사회를 향한 일종의 견학의 여정이었다. 화성인들은 그가 화성에서 신기술과 새 문명을 학습하고 돌아오면 지구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설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레오니드가 연인과 헤어져 홀로 우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지구보다 훨씬 발달한 과학기술을 지닌 화성인들은 친절하게 레오니드를 보살펴 주었으며, 새로운 문명을 배우는 데 의무감과 사명감을 느낀 그는 불철주야 견학과 연구에 빠져들게 된다. 유토피아 문학이 대개 방문자의 위치에서 이상향을 묘사하는 데 치중한다면,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과학과 기술의 습득이라는 과제를 주인공에게 부여하고 있다. 레오니드에게 화성여행은 하나의 '미션'이었던 셈이다.

화성의 과학과 기술은 실로 놀라운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레오니드가 타고 온 비행선의 이동원리는 사물 간의 척력을 응용한 것이었으며, 그 동력원인 마이너스 물질을 얻기 위해 화성인들은 전 우주를 탐사하고 다니던 중이었다. 또한 그들은 2차원 사진을 3차원적으로 구현하기도 하고, 카메라와 축음기를 하나로 연결하는가 하면, 인공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었다. 『붉은 별』을 SF장르로 분류하는 중요한 근거가 그와 같은 과학기술적 예견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한편, 화성의 제도는 동시대의 사회주의자들이 구상했던 미래의 모습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다. 레오니드는 공장과 탁아소, 예술박물관과 병원 등을 방문해 신세계의 조직과 규범을 관찰하는데, 한 마디로 그곳은 질서정연한 논리에 따라 인간의 삶이 구성되는 사회였다.[24] 공장은 강력한 전기에 의해 구동되는 거대한 기계였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욕

망에 따라 업무를 바꿔가며 노동에 종사하지만, 특정 직종에 과중하게 인원이 몰리거나 부족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발달된 통계적 자동화에 의해 욕망마저 적절히 예측되고 그에 따라 모두가 매일 직종을 바꾼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평형'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는 불필요하고 모든 것은 계산된다. 탁아소는 아이들의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성차에 따른 구분도 없고, 개인 간의 분별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서로에 대해 공평무사하게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사적 개인 없이도 집단을 형성하는 원리가 사회주의에 있다고 화성인들은 자랑스럽게 말한다.

화성인들에게 예술박물관은 과학연구기관이다. 그곳의 전시품은 고가의 장식품이 아니라 기계의 정확한 운동을 미적인 쾌감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장치들인 것이다. 지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값비싼 그림이나 조각은 전혀 없고, 예술로서의 기술을 표현하는 작품들이 기예의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되어 있다. 화성에서도 인간의 신체적 아름다움은 널리 인정받고 있으나, 그것은 성별・개인별로 특화된 것이 아닐 뿐더러 사회 구성원들의 동등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만 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화성인들은 체구나 용모가 상당히 유사해졌고 이방인의 눈으로는 개인 간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게 진화했다. 그들은 심지어 성별에 따라서도 구분되지 않는다. 레오니드는 화성인들이 모두 엇비슷하게 생겼다고 느끼며 그들의 성별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화성의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자유로운 인간 발전의 시대"를 드러내는 증거로서 승인되어 있다.[25] 화성은

24) 『붉은 별』에 열거된 레오니드의 방문지들은 유토피아 문학이 즐겨 서술하는 미래 사회의 핵심부들이다. 학문과 교육, 산업과 재생산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이야말로 현재와 구별되는 미래 사회의 특징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의 집단양육과 보호, 교육의 이상은 유토피아적 모티브인 동시에 20세기 초반 러시아의 사회운동의 흐름과 긴밀히 결부된 것이었다. 최진석(2013), 「혁명기 러시아의 정신분석 운동」, 『외국학연구』 24, pp. 589-613 참조.

25) A. 보그다노프(2016), 김수연 역, 『붉은 별. 어떤 유토피아』, 파주: 아고라, p. 99;

지구의 미래가 되어야 하며, 그 임무를 레오니드가 지고 있는 것이다.

몹시 이상하게도, 후반부로 갈수록 소설은 유토피아 문학의 전형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간다. 미래 사회의 지식을 무리하게 습득하다가 발병하게 된 레오니드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는 점차 심리묘사적인 스릴러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화성의 지식을 다 익힐 수 없다는 데 절망한 레오니드는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한 감상에 젖어 좌절감을 토로하기에 이른다. 그의 피폐해진 심정과 낙담, 후회의 감정이 여러 장에 걸쳐 자세하고 길게 묘사되며 화성의 임무에 대한 회의가 급격히 고조되기에 이른다. 마침내 애초에 그가 맡았던 사명, 곧 화성의 과학기술을 지구로 옮겨오겠다는 기획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공황적 발작에 빠진 레오니드는 병원에 입원하고 만다. 여기서 뜻밖에 자신을 정성스레 돌보아준 네티가 여성이란 사실을 알게 된 레오니드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면서 점차 회복되어가지만, 그녀가 금성에 탐사를 간 사이에 우연히 행성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화성의 자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를 정복해야 하며 '미개한' 지구인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우니 절멸시켜 버리자는 스테르니의 계획이었다. 증오감에 사로잡힌 레오니드는 결국 그를 살해하고 체포되지만, 지구로 돌려보내져 치료를 받다가 네티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회고적 환상에 젖는다.

4.3. 혁명의 도덕, 대립과 동일시의 착종

레오니드의 동선과 사건을 위주로 따라가면 『붉은 별』은 유토피아와 스릴러 서사의 결합물로 읽히게 된다. 1908년의 혼란한 시국을 벗어나

A. Bogdanov (2014), *Praznik bessmertiia*, CPb.: Lenizdat, p. 100. 한국어 번역본은 영문판을 기준으로 옮긴 것인데, 영문판의 문제점인 누락이나 불명확한 번역 등이 노출되어 『붉은 별』을 정치적 소설로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괄호 속에 (한국어판:러시아어판)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밝고 희망찬 미래로 여행을 떠나고, 거기서 다시 사랑과 살인의 복잡한 플롯을 이룬 후 지구로 귀환한다는 이야기가 당대의 독자들에게 얼마간 호소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응집력 있게 잘 갈무리되지 않은 줄거리는 다소 혼란스럽고, 미래 사회에 대한 서술과 주인공의 심리묘사는 엇박자를 내면서 제대로 어우러지지 않는다. 보그다노프의 필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여기엔 모종의 의도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그것은 작가 자신의 정치적 이력에 따른 질문과 대답이라는 가정이 이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보그다노프는 무엇에 관해 말하고 싶었을까? 자신과 볼셰비키의 대결이 아니었을까?

소설의 첫 대목에서 레오니드는 자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자기는 스물일곱 밖에 되지 않았으나 '오래된' 당원으로 분류된다는 것, 아직 과학이나 문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어린이 잡지에 글을 써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안나 니콜라예브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연인이 되기 전, 레오니드는 그녀가 자기보다 연상이지만 "아직 완전히 자기 결정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간주했고(13:22),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즉, 안나는 레오니드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입장을 완결지은 개인이었고, 그 입장은 그와 극단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커져만 갔다는 게 그의 고백이다.

> 서로 친밀해지자마자 우리 두 사람 모두 성격의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병적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성격 차이는 혁명 과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서로에 대한 소유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점차 깊은 이념적 불일치의 형태로 나아갔다.
>
> 그녀는 의무와 희생의 기치 아래 혁명의 대열로 나섰지만, 나는 내 자신의 자유로운 욕망을 위해 나선 것이었다. 도덕주의자였던 그

> 녀는 지고한 윤리에 만족감을 느꼈기에 위대한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에 결합했지만, 무(無)도덕주의자였던 나는 단지 삶을 사랑했을 뿐이고, 삶의 더 높은 번영을 원했기에 번영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주요한 길을 만드는 운동에 동참했던 것이다. 안나 니콜라예브나에게 프롤레타리아 윤리는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었다. 반면 나는 프롤레타리아 윤리를 노동계급이 투쟁할 때 필요한 것이지만, 마치 투쟁 그 자체와 그것을 만들어내는 삶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만 유용한 도구로 간주했다. 안나 니콜라예브나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전체 인류의 도덕을 만드는 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도덕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미 모든 도덕의 소멸로 나아가는 중이라 말했다. 나아가 노동과 즐거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동지로 연결시켜 주는 사회적 감정은 윤리라는 페티시적 껍질을 자유롭게 던져버릴 때만 완전히 발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3-14:22-23).

인용된 문장은 레오니드와 안나 사이의 철저한 이분법적 대립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는 이 대립이 "성격 차이"라고 말했지만, 실상 혁명과 이념, 대의와 윤리라는 문제에 있어서 두 사람 사이의 극단적인 관점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두 연인간의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입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짐작하다시피, 그것은 레닌과 보그다노프의 대립이다.

1902년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출판하며 전위적 혁명 정당의 임무와 원리에 대해 천명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혁명가는 노동자 조직의 '외부'에서 정세에 대해 더 넓고 더 깊이, 더 많이 아는 식견의 보유자다. 노동자들은 생활의 직접적인 굴레에 갇혀 있기에 혁명운동의 전체를 조감하고 분석할 만한 여유나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위적 투사는 당을 구성하여 노동자들을 선도해야 할 임무가 있다.[26] 이와 같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혁명 투사는 평범한 대중을 상회하는 높은 도덕성을

26) V. 레닌(1988), 김민호 역,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백두, p. 33.

지녀야 한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인류애나 사회규범에 대한 책임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보편성'은 대개 지배계급으로서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은폐된 형식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이 담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유일한 도덕은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의에 대한 것, 당을 통해 표명되는 공산주의적 미래를 향한 것일 수밖에 없다. 흔히 레닌의 도덕관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테제로 집약되지만,[27] 핵심은 수단에 대한 성찰은 자칫 부르주아적 도덕이라는 함정에 걸리기 쉬우며 혁명가는 그것을 돌파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혁명의 본질은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토대로서 혁명당을 조직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동지적인 상호신뢰'와 같은 책임감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28] 안나 니콜라예브나의 입장은 전적으로 여기에 상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레오니드는 어떤 입장인가? 아마 보그다노프의 입장을 서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리라.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헌신적 열정 및 혁명 대의에 근거한 전위의 도덕에 깊은 회의를 갖고 있었다. 개인으로서 혁명을 열망하고 윤리적 원칙을 갖는 것과 이를 집단적으로 조직하여 강철의 대오를 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던 것이다. 특히 규율에 근거하여 개인과 집단을 지도할 수 있다는 레닌적 교의는 보그다노프의 깊은 반감을 샀다. 스스로를 과학자로 자리매김하던 그에게 도덕성과 윤리에 대한 강박이란 관념론이나 형이상학과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의 징후로 여겨졌을 따름이다.[29] 경험의 평등한 공유와 분유를 통

27) R. Service (2000), *Lenin: A Biography*, London: Macmillan, p. 293.

28) 레닌(1988), p. 150. 물론 이와 같은 동지간의 상호신뢰는 당에 대한 맹신을 포함하기에 결코 수평적인 관계라 할 수 없다. 혁명 이후, 레닌이 의식적 규율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에게 복종을 강제했던 이유는 그로부터 연유했다. 최진석(2015), 「트로츠키와 문화정치학의 문제: 무의식과 '새로운 인간'을 둘러싼 투쟁」, 『마르크스주의 연구』 12(4), pp. 21-22.

29) Berdiaev (1991), p. 129. 보그다노프에게 사회혁명은 과거에 대한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일정한 이행기를 경유하여 설립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정치체를 의미했

해 노동자들이 상호 교감하는 공동체를 혁명의 이상으로 여겼던 보그다노프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사회적 목표를 동지적 관계의 구성에 두었다. 의식적인 규율이나 사명감 등으로 확보되지 않는 이 관계는 이데올로기적 동일성이 아니라 무의식적 정동의 리듬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감정의 산물이다.[30]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하여 사회주의적 공동체로 나아가면 갈수록 강제적인 규칙과 법칙은 쓸모가 없다. 차라리 "노동과 즐거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동지로 연결시켜 주는" 사회적 감정을 통해 사유와 행위의 원리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물론, 소설 전편을 통해 안나와 레오니드의 직접적인 대립은 벌어지지 않는다. 관건은 화성으로 떠나는 레오니드가 맡은 사명이 그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안나의 것이라는 데 있다. 지구에서 무도덕주의자와 쾌락적 개인주의를 표방하던 그는 화성에 도착한 뒤 자신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사적인 쾌락을 억제하는 도덕주의자의 면모를 띠게 되기 때문이다. 안나와의 동일시는 말없이 그녀를 떠난 데 대한 죄책감을 무의식적으로 보상하는 행동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망각은 거꾸로 그녀의 임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보상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레오니드의 화성 행적을 보그다노프가 아니라 레닌의 것으로 바꿔서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된다. 화성이 보유한 미래 사회의 지식을 획득하고자 갖은 노력을 다한 레오니드가 결국 참담하게 실패하고 만다는 서사는

다. 그것은 윤리와 과학, 인간적 가치 및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낳을 것인바, 부르주아 시대의 규정들과는 판연히 다른 것이 되어야 했다. L. Mally (1990), *Culture of the Future. The Proletkult Movement in Revolutionary Russi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5. 이행기의 성격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따라 보그다노프의 프롤레타리아 문화론은 상이한 관점에서 조명되어 왔다.

30) 최진석(2017), pp. 114-115; Mally (1990), p. 137. 보그다노프에게 노동의 윤리와 노동자 규율이란 선도적 지도부로부터 교시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상경험으로부터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혁명 후 그가 전념하게 되는 프롤레트쿨트에서 예술의 기능이란 바로 그러한 '아래로부터의 발생적 윤리'를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보그다노프가 아니라 레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낯선 이상향에서 보고 들은 발전된 문물을 동시대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은 유토피아 서사의 전형적인 구조다. 『붉은 별』이 외형상 그러한 서사적 외형을 띠면서도, 실제로는 그와 상반되는 귀결로 향한다는 것은 작가가 숨겨 놓은 정치적 논쟁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논의를 계속해 보자.

4.4. 인류애, 또는 미래에 대한 애도와 우울증

> 처음 며칠 동안 노도처럼 내 의식에 밀려들어 온 인상들은 내게 주어진 막대한 크기의 노동에 대한 관념을 일깨워주었다. 먼저 나는 이 세계와 그 풍부하고 고유한 생활의 구조를 이해해야 했다. 그 다음엔 박물관에서 신기하게 둘러보는 관람객이 아니라 화성인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자들의 중의 한 노동자로서 이 세계에 들어가 보아야 했다. 오직 그때서야 나의 임무는 완수될 것이고, 그때만이 두 세계 사이의 실제적인 상호관계의 원리로서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사회주의자로서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찰나의 현재처럼 말이다(116-117:116).
>
> 공부는 더 이상 생생한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그 무엇도 내게서 예전과 같은 직접적인 흥미를 끌어내지 못했다. […] 한 가지 주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생각들은 이리저리 빗나가기 시작했다. 때때로 전혀 예기치 않은 먼 기억들이 생생하게 의식으로 흘러 들어왔고, 귀중한 시간을 빼앗으며 주변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를 알고 나서는 새로운 에너지에 충만하여 일에 몰두하려 했으나, 곧 과거의 잔상이나 환상이 또다시 뇌수를 잠식하고 격한 노력을 통해 그것을 몰아내야 하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 점점 더 자주 나는 무언가 낯설고 불안한 감정에 몸을 떨게 되었다(121;120-121).

화성인들은 수세기에 걸쳐 유전적 변이를 겪어 잘 노화되지도 않고, 이해력이나 지성에 있어서도 훨씬 우월하며, 서로 간의 텔레파시 소통을

통해 감정과 지식을 공유하는 진화된 존재들이다. 낯선 환경에 고립된 채 홀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하는 단독자 지구인 레오니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리 없다. 잠을 줄이고 불철주야 독서와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화성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의지를 불태우지만, 그러한 욕망은 끝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마는 것이다. 절망에 휩싸인 레오니드는 병적인 혼돈에 빠져서 몸져눕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때 안나의 환영이 그를 찾아온다.

> 마침내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기력과 권태가 점점 더 강하게 내 의지를 장악하고, 이 상태와 투쟁하기를 점차 그만두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보니 두 눈앞이 침침해져 있었다. 하지만 곧 나아지자 나는 공원의 나무들을 보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날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자 내 앞에는 안나 니콜라예브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낯빛은 창백했고 음울해 보였으며, 책망으로 가득 찬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몹시 괴로웠다. 그녀의 출현이 이상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녀 쪽으로 다가가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공기 속에 녹아내리듯이 사라져 버렸다(124:123).

뜬금없어 보이는 안나의 출현은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화성으로 떠난 데 대한 자책감. 소설의 첫 머리에서 화성으로 떠나오면서 레오니드는 그녀를 의식적으로는 망각했으나 무의식적으로는 항상 곁에 두고 있었을지 모른다. 신체 상태가 악화되면서 억압해 둔 그녀의 이미지가 병증을 틈타 솟아오른 것이다. 둘째는 곧 이어질 네티와의 연애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주변의 화성인들에 대해 호감과 호의를 갖고 있는 레오니드의 정서적 태도는 그들과 언제든지 정념적 관계에 돌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는다. 실제로 레오니드는 화성인들의 성별에 대한 궁금증을 약간씩 드러내며 자신이 동성애적 감정에 젖어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했던 것이다.[31]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안나의 출현을 레오니드가 화성에서의 사명, 즉 미래 사회의 지식을 익혀 지구로 돌아오는 임무를 포기한 데 대한 자기 처벌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화성으로 오는 임무를 받아들이면서 레오니드는 자신도 모르게 안나의 분신으로서 행동했던 점을 기억하자. 도덕주의자인 안나에 비해 무도적주의를 내세웠고, 인생의 즐거움을 긍정했던 그는 사명감이나 의무감에 강력히 견인되는 성격이 아니었다. 혁명의 대오에 나섰던 것 역시 "자유로운 욕망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안나처럼 강한 도덕적 자의식으로 무장한 것도 아니었고, "삶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더 높은 번영을 원했던" 그였기에 화성의 사명이란 처음부터 그에게 어울릴 수 없는 과제였다. 하지만 화성에 도착한 후로 레오니드는 자신의 욕망을 거세시킨 채 미래의 지식을 얻으려 불가능한 임무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 노력이 실패로 드러나자 자신을 꾸짖는 것은 당연히 "의무"와 "희생", "프롤레타리아 도덕"에 헌신하는 안나의 환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조건으로 떠안은 사명을 그가 끝내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책망하는 것이고, 결국 억눌렸던 죄책감이 부상한 발로가 그의 정신착란적 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네티와의 사랑은 치유의 과정이기보다 리비도 에너지의 또 다른 잠복과 응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레오니드의 화성의 사명은 지구

31) 네티가 여성이라는 고백을 받은 후 레오니드는 메니의 성별을 그녀에게 묻고는 남성이란 사실에 크게 안도한다. "내가 그와 사랑에 빠진다면 끔찍할 것"이란 것이다(132:129). 거꾸로 말해 레오니드는 메니에 대한 동성애적 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네티와 나눈 이 대화는 소련 해체 무렵의 보그다노프 선집에는 생략부호로 표시되어 있기에 더욱 큰 흥미를 자아낸다. A. Bogdanov (1990), *Voprosy sotsializma. Raboty raznykh let,* M.: Izdatel'stvo politicheskoi literatury, p. 167.

의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안나를 대신한 인류에 대한 사랑이며, 사랑의 대상에 대한 리비도의 투여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그의 무능력으로 인해 사명은 실패하고, 인류는 더 이상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상실의 대상이자 회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프로이트를 빌어 말한다면, 레오니드의 발병은 리비도의 투여 대상이 상실된 데 따른 갈 곳 없는 에너지의 산란, 우울증의 결과였을 수 있다.[32] 자기의 실패로 말미암아 안나는 버려졌고 인류는 유토피아적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놓쳤다. 이는 모두 자신의 무능력과 도덕적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레오니드의 자아는 빈곤해지고 가학적인 자책감을 피하지 못한 채 무너지게 된다. 그의 착란적 망상은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데 따른 우울증적 자기 책벌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던 그에게 네티는 "인류에 대한 의무를 멀리 치우고" 그 자리를 대신 메꾸는 새로운 사랑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129:127). 인류를 대신하여 네티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레오니드는 치유를 향해 한 걸음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애도란 리비도 정동의 순환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을 말할 뿐, 여기에는 또 다른 상실 혹은 순환의 파열 가능성이 언제나 잠재해 있다. 달리 말해, 네티와의 사랑은 레오니드에게 인류에 대한 애도로서 우울증의 완화를 가리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하게 위험한 에너지가 의식 아래로 가라앉아 다른 방식으로 응축되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희에 찬 포옹을 나누면서도, 네티는 그에게 "당신의 사랑은 마치 사람을 죽일 듯하다"는 예언적 감상을 던지는 것이다(130:128). 하지만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레오니드는 그렇게도 갈구하던 미래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듯한 환상에 사로잡힌다. "미래는 나의 것이

32) S. Freud (1957), "Mourning and Melancholia (1917),"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IV, J. Strachey (ed), London: The Hogarth Press, pp. 243-258.

었다"(131:129). 과연 그럴까? '사회주의적 미래'란 안나가 욕망하던 대상이었고, 화성에 도착한 이후로는 인류의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레오니드는 안나와 인류의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했던 것이다. 그럼 이제 그는 네티와 사랑에 빠짐으로써 비로소 무도덕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자신의 본래적인 욕망에 도달한 것일까? 그를 줄곧 사로잡았던 의무와 사명의 "환영"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까? 레오니드는 비로소 미래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일까?

4.5. 억압된 것의 귀환과 파국

대의를 위한 의무와 희생, 도덕주의로 무장한 안나는 레닌의 문학적 대리인이다. 반면 레오니드는 삶과 감수성, 감각의 만족을 더욱 사랑하고, 쾌락적인 삶을 소유하고자 의지한다는 점에서 안나의 반대편에 있다. 필시 보그다노프가 지지하는 입장은 반(反)레닌과 반(反)볼셰비키라는 의미에서 레오니드에 가까울 것이다. 화성에서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착란 속에 안나를 마주쳐서 괴로워할 때 그를 구해준 것은 네티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정념과 쾌락의 형상이며, 인류라는 대의명분과 초자아적 이상과는 다른 것, 보그다노프의 본래적인 가치관에 더욱 부합하는 문학적 형상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문학적 대리표상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드라마를 통해 보그다노프는 혁명에 대한 레닌적 방식을 부정한 것일까? 그것은 성공적이었을까?

네티와의 연애를 통해 레오니드의 발작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화성에서의 임무는 종료된 듯 여겨졌다. 아니, 어쩌면 그의 사명은 지구에 있을 때 그가 갖고 있던 본래적인 자신의 것, 무도덕적 쾌락주의의 완수로서 네티와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사랑에 들뜬 그는 네티를 통해 미래가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선언했으나, 그가 손에 넣은 미래는, 정확히 말해 '미래로 강박되지

않는 미래'를 말한다. 즉, 그것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구의 사회주의를 완성시켜야 하는 사명감,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인간이 되어 귀환함으로써 지구를 유토피아적 미래로 견인해야 하는 의무감에 자신을 속박시키지 않는 '또 다른 미래'를 뜻한다.[33] 자신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찰나의 현재"에 살고 있으며, 화성과 지구의 "경계"에 있다고 진술했듯이(117:116), 레오니드는 자기의 능력이 미칠 수 없는 미래에 억지로 도달해야 한다고 욕망하지 않는다. 비록 그 자신은 사회주의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되, 인류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언젠가 도달할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네티와 맺은 '현재의 사랑'은 인류를 위한 '미래의 노동'을 대체하였으며, 이로써 그는 지구와 화성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의 경계선에서 행복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그가 식민지탐사계획에 대한 회의록을 열람하기 전까지는.

몇 가지 흥미로운 대목들을 짚어보자. 우선, 네티와의 연애 이후 레오니드의 상태는 완전히 호전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네티의 도움으로 화성의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게 된 그는 여전히 미래를 정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화성인들의 월등한 능력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감을 나날이 강화시켜 가고 있었다. 예컨대 공장의 기술적 원리에 관한 교과서들을 열심히 들추어 보지만, 그것들은 "하위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전히 따라잡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136:133). 또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어도, 화성인들에 비해 몇 배나 되는 노고를 들여야 겨우 끝낼 수 있었기에 그

33) 화성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레오니드의 멘토인 메니는 화성의 임무에 적합한 지구인의 조건을 육체적 건강성과 유연성 및 지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지구에서의 개인적 관계에 덜 얽매여 있으며, 가급적 덜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적시한다(45;51). 애초에 레오니드가 선발된 까닭은 그가 이 조건들을 만족시킬 것이라 기대되었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부적격한 사람으로 판명된 것이다.

피로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들이 쉽게 집중하는 일에도 그는 진땀을 흘리며 거듭 애써야 했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도 남의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화성인들의 특이한 집중력은 그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몇 세대에 걸쳐 화성인들이 발전시켜온 집단적 능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140:137).

다른 한편, 네티가 떠난 사이 에노와 친밀감을 공유하던 레오니드는 그녀와 메니 사이의 과거에 관해 알게 되고,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네티가 부재하는 탓에 일어난 돌발적 사건이지만, 에노와의 사이에서 싹튼 우정과 사랑은 "환영적이고 낯선" 것으로서 레오니드의 불안한 정서상태를 더욱 뒤흔들어 놓고 있다(144:141). 사정은 네티의 과거를 좇아 넬라를 찾아가면서 더욱 극대화된다. 놀랍게도 네티는 예전에 스테르니의 아내이자 동시에 레타의 아내로서도 살았던 적이 있다. 일부일처제는 인간을 속박하는 제도라고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오니드는 네티가 일처다부적 관계에 있었던 과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신이 네티의 "첫 번째 남편"이리라 생각지는 않았으나, 막상 자신의 화성인 부인이 과거에 다른 남성들의 아내였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다른 유토피아 문학들과 달리 『붉은 별』은 화성의 결혼제도에 관해 소상히 밝히지는 않지만,[34]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분배와 유동에 따라 각자가 다른 파트너를 찾아다니는 것이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서로 연인을 만나 결혼하고 헤어지는 데는 물론 정념의 고통이 결부되지만, 과거의 관계가 현재를 압박하거나 미래를 제약하는 일은 드문 것이다.

34) 전통적인 유토피아 문학작품들은 공동체의 지속을 담보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재생산 문제를 반드시 거론하고 넘어갔다. 예를 들어, 『유토피아』나 『태양의 도시』는 건강하고 우월한 능력을 지닌 다음 세대를 확보하기 위해 결혼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을 적시하고 있다. 디스토피아 소설로 유명한 『우리들』 역시 이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상하게도 『붉은 별』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대단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유토피아의 세대적 연속성에 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네티는 이 마저도 예견하고 레오니드에게 남긴 편지에서 “낡은 세계를 지배하는 폭력과 노예적 관계”에 자신을 내버려두지 말라고 요청하지만(151:147), 레오니드는 이 사건으로부터 내적인 “굴욕감”에 사로잡히고 만다(152:148).

레오니드가 네티가 떠난 탐사단의 회의록을 찾아본 것은 이때였다. 그녀의 사랑과 두 세계를 연결하는 자신의 임무, 그리고 홀로 남겨진 불안한 처지가 초래한 혼돈을 벗어나기 위해 그는 도서관에서 사서 몰래 축음기에 녹음된 회의록을 듣고, 스테르니의 계획을 알게 된 후 그를 향한 증오감에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레오니드의 정서적 상태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나의 환영을 본 직후 혼란에 빠졌던 그는 네티를 만나면서 안정을 찾는 듯했으나, 다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피폐감에 젖게 되었고, 사랑과 결혼을 둘러싼 정념의 혼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가 도서관에서 처음 받았던 자료는 의회의 결의안 모음집이었고, 그것으로는 상세한 회의 경과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사서는 회의록은 출판되지 않았기에 보여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를 “믿을 수 없”던 레오니드는 사서가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했고, 몰래 축음기 코너에서 회의록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가 들은 것은 화성의 엔지니어-의원들이 발언한 ‘목소리’들이었고, 이 목소리들은 그에게 잊혀졌던 모든 것을 불러내는 주술이 되어 머릿속을 뒤집어 놓는다. 스테르니와 네티, 메니와 레오니드 자신의 목소리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급기야 살인의 충동으로 폭발해 버리는 것이다.

> “우리는 [절멸의 — 인용자] 필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백만의 인간의 맹아들을... 지구 인류의 전면 몰살... 인류의 영혼은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관성이나 결론도 없었다. […] “모두 죽을 거야... 안나 니콜라예브나... 노동자 반야... 그리고 네티, 아냐, 네티는 살아남겠지, 화성인이니까, 하지만 모두는 다 죽을 거야...

> […] 고통스럽고 멈추지 않는, 출구없는 망상이었다. 환영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의 검은 환영이 내 영혼 속에 있었으나, 그것은 '모든 것'이었다(177-178:173-175).

서사적 고리만 따져본다면 스테르니의 절멸계획에 대한 레오니드의 절망과 분노로 읽을 수 있지만, 무의식의 의미론적 지평에서 해석한다면 레오니드가 축음기로부터 들은 목소리들은 실상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만의 환영, 자기의 '병든 영혼'으로부터 나타난 환영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환영은 네티와의 사랑으로 사라졌던 과거의 사명감, 미래에 대한 의무감으로서 안나를 거쳐 인류로 이어졌던 그의 부채감에 다름 아니다. 결국 억압되었던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스테르니에 대한 증오와 살인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살인사건 이후 오히려 레오니드는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는 화성에서의 사명이 '종료'되었으며 지구의 미래는 '끝났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나는 스테르니를 죽였고, 그로써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화성인들은 이제 지구인과 가깝게 지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을 터였다. 지구인 중 화성에서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던 사람도 폭력과 죽음만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스테르니는 죽었지만 그의 생각은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지구는 끝났다. 그리고 그건 모두 나의 죄였다. […] 여기에 깊은 자기혐오가 동반되었다. 나는 내가 전 인류를 배반했다고 느꼈다(182-183:177-178).

화성에서의 사명은 마침내 레오니드의 "배반"으로 종식된다. 단지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지구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것으로 겨우 마감된 것이다. 그렇다면 레닌과 볼셰비키의 이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레오니드가 지구의 미래를 망쳐놓았을 때 함께 파괴되었을까? 우리는 안나가 레닌의 분신인 반면, 레오니드는 보그다노프에 가까운 인물이라 분석했다. 그렇게만 본다면 레닌에 반대한 보그다노프야말로 사회주의적 미래를 망친 주동자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성의 사명은 레오니드를 안나의 대리인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는 끝내 안나의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나의 대리인으로서 레오니드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고수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지구의 미래마저 끝장내 버린 것이다. 네티와의 사랑을 통해 잠시 고통스런 사명을 내려놓는 듯싶었으나 이내 다른 방식으로 복귀했고, 살인은 불가피한 필연으로서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던 유일한 선택지'였다. 스테르니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의 계획이 실현되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고, 죽이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지구인에게 희망을 보지 못한 화성인들은 지구를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레오니드의 운명은 미래가 없는 자멸적인 종결로 치닫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보그다노프가 레닌과 볼셰비키에 대해 던질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정치적 우화가 아닐까? 그렇다면 『붉은 별』은 보그다노프의 사적인 앙심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통쾌한 복수극이라 할 수 있을까?

5. 배반의 유토피아와 정치적 무의식

잠시 화성의 일화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고, 그저 행복하기만 할 듯한 유토피아에도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암시되는 장면이 거기에 있다. 이는 화성에서 살아가는 미래의 인간, 사회주의적 인간은 무엇으로 고통받는가, 어떤 문제가 유토피아를 유토피아 아닌 것으로 바꾸어 놓는가라는 질문과 관련된 일화이다. 만일 유토피아에도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유토피

아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토피아의 이면에 관한 질문은 상당히 심각한 파국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물론 모어나 캄파넬라, 베이컨 등의 낙원에서도 나름의 단점과 결함이 발견된다. 그곳의 인간들은 흡사 인간을 초월하는 도덕과 감각을 가진 듯하며, 사회적 풍속과 관습, 처벌의 관행 등에서 방문객들의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규범과 습속은 상당히 단순하고 솔직담백하여 복잡다단한 당대의 독자들에게는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듯한 순박성을 갖는다. 바꿔 말해, 유토피아인들의 단점과 결함은 우리들에게나 해당되는 단점과 결함인 것이다. 일견 보그다노프의 화성인들도 그런 듯 보인다. 이들은 감정적인 흐름에 쉽게 휩싸이지 않고, 매사에 합리적이며 대결보다는 화해와 조화를 선호하는 '진보된' 인간들이다. 육체적으로도 쉽게 지치거나 피로에 젖지 않고, 그로써 정신이 훨씬 강화되는 면모를 보일 정도다. 어쩌면 화성인들은 니체적 의미에서의 '초인'일지 모른다. 즉 인간을 넘어선 인간, 혹은 비인간이 그들이다. 19세기 이래 사회주의적 이상이 꿈꾸어 왔고, 1917년의 혁명이 성공한 이래 '공산주의적 인간' 또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표제를 통해 형상화된 인간상은 근대적 인간의 범주로는 포괄되지 않는 이질적 특징들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화성인들이 갖는 우월한 자질은 지구인보다 '더 나은' 자질이 아니라 '다른' 자질인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들도 지구의 인간과 동일한 약점을, '단점과 결함'을 갖는다면 어쩔 것인가?

문제는 정념이다. 근대적 인간이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배제해 왔던 정념의 차원은 인간의 부정성 그 자체로 간주되어 왔고, 따라서 현실의 인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이라면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만악의 근원'으로 표상될 수 있다. 공장과 병원을 방문한 레오니드는 네티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데, 유의해 볼 지점이다.

환자들 중에는 외과수술을 받는 사람과 신경증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외과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기계가 일으킨 우발적 사고의 희생자들이었다.

"설마 당신네들 공장과 작업장의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요?" 내가 네티에게 물었다.

"사고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란 불가능해요. 절대 방지란 거의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여기에 모인 환자들은 인구 2백만 명이 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규모의 인구 중 환자가 수십 명 발생했다는 것은 그리 많은 수는 아닙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작업하는 기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신참들이지요. 우리들은 한 생산부문에서 다른 생산부문으로 옮겨 다니길 좋아한답니다. 전문가와 과학자, 예술가들은 정신이 산만하기 때문에 특히 사고를 잘 내지요. 이들은 계속해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곤 합니다. 또한 너무 깊이 몰두하거나 관조 속에 자신을 망각해 버리기도 하거든요."

"신경증 환자들은요? 물론, 주로 너무 진이 빠져서 그런 거겠죠?"

["네,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죠. 흥분과 성생활의 위기, 그리고 지인들의 죽음과 같은 정신적인 동요로 인한 병증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절망이나 혼란된 의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발병한 사람은 없나요?"]

"아뇨 여기에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110:110-111).

대괄호를 친 부분은 영문판에서 누락된 부분으로서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네티는 자기도 모르게 화성의 유토피아에도 성생활의 문제와 정신적 분열, 우울증이 만연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떤 억압이 작동하고 있는가?

조금 대담하게 추론해 본다면, 화성은 신경증은 있어도 정신병은 없는 사회다. 누락으로 인해 완전히 거꾸로 전개되는 영문판과 달리, 러시아어 원본은 신경증자들이 존재하며, 지나친 흥분과 성생활의 위기, 상실감으로 인한 정신적 동요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다. 가령 성생활이 신

경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은 정신분석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보그다노프가 정신의학자로 활동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신경증과 정신병의 임상적 차이를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매우 잘 알았을 듯싶다. 그렇다면 유토피아에 정신병은 없어도 신경증은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알다시피 정신병은 '정상적인' 상징계가 파탄에 이르되 또 다른 기호계를 구성하여 나름의 정합적인 사고와 행동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35]

프로이트가 말했듯,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신경증을 앓고 있다. 그렇다면 화성인은 지구인과 정신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뜻이 된다. 그들은 지구인과 완전히 다른 정신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며, 그들이 갖춘 진보적 능력은 다만 신체적인 측면에 한정된 것일 수 있다. 신경증을 앓는 화성인들은 지구인과 마찬가지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을 확률이 크다. 즉 그것은 정념의 문제이다. 신경증은 억압이 있다는 표지이며, 억압이 있다는 것은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것은 무엇일까? 정념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을까? 유토피아와 정념의 억압. 이것이 가능한 조합일까? 여기에 화성인의 문제가 있다. 지구인 레오니드의 감탄어린 시선에는 미처 포착되지 않았지만, 미래 유토피아의 '새로운 인간'인 화성인에게도 무의식적 억압이 존재하고, 따라서 그들은 지구인과 똑같이 신경증으로 고통받는다. 무성적이고 무개성적인 화성인조차 정념에 시달리는 것이다.

에노의 사례가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녀의 전 남편인 메니

35) 슈레버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프로이트는 그를 편집증(paranoia)으로 진단했지만, 들뢰즈와 가타리는 분열증(schizophrenia)으로 바꿔 부른 바 있다. 분류상 양자는 정신병(psychosis)에 귀속되며, 타자들과 공유되지 않는 독자적인 언어와 표상의 세계를 갖는다. 즉, 자신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신세계와 그 표현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S. Freud (1958), "Psycho-Analytic Notes on An Autobiographical Account of A Case of Paranoia (1911),"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II, J. Strachey (ed), London: The Hogarth Press, pp. 3-82; G. Deleuze et F. Guattari (1972), *L'Anti-Œdipe: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는 화성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과도한 지성의 발달로 인해 그 자신도 체감하지 못하는 성적 불능에 빠져 있다(142:139). 본인도 모르거나 심각히 여기지 않는 이상 성적 장애는 전혀 문제가 안 될 테지만, 에노는 이로 인해 그와 이혼할 충분한 사유를 갖게 되었다. 생식의 차원이 문제인지 성적 만족이 문제인지는 불명료해도, 확실한 것은 에노가 아이를 원했으며 메니가 그녀의 욕망을 이루어줄 상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너무나 깊이 절망하여 자살을 원할 정도로 스스로를 내몰았지만 간신히 회복되었고, 레오니드와 은밀한 연애관계를 맺게 된다. 하지만 그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원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우리는 그녀가 아이를 낳아 새로운 세대를 이어갈 의지나 능력을 상실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상향으로서 화성 사회는 과학기술적 발전에 있어서는 지구를 월등히 능가하지만, 세대 간의 재생산 문제와 성적 욕망이라는 정념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나큰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닐까? 레닌과 볼셰비키에 반대하여, 그들의 혁명노선을 풍자하고 비웃으려던 보그다노프는 자신도 모르게 미래의 사회주의를 배반해 버린 게 아닐까? 양잿물을 비우다 아이까지 내다버린 것처럼. 앞서 레닌-볼셰비키적 표상으로서 안나를 내세우고, 그녀의 대리인으로 레오니드의 실패를 상연하였을 때 우리는 보그다노프의 의식적인 정치적 복수전을 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갔을 때, 우리는 미래의 사회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유토피아의 무의식적 자기복수에 직면하고 말았다.[36] 정념의 문제는 유토피아에도 우리 지구인들,

36)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문학과 정치연구에 끌어들인 프레드릭 제임슨은 모든 텍스트가 역사라는 실재(the Real) 앞에 직면하여 철저하게 역사화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제아무리 초월적인 주장을 펼치는 텍스트라도 역사에 대면하여 상대화되고, 이는 정치화를 수반한다는 주장이다. F. 제임슨(2015), 이경덕 외 역, 『정치적 무의식: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서사』, 서울: 민음사, ch. 1. 미래의 사회주의, 유토피아 서사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현재의 지평에서 유토피아와 미

즉 혁명기의 러시아인들이 그런 것처럼 동일한 문제와 고통이 있을 뿐이란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보그다노프 자신은 한사코 부정할지 몰라도, 『붉은 별』은 유토피아의 불가능성을 은밀하게 암시하는 정치적 무의식의 무대화가 되어버린 셈이다. '당신들이 꿈꾸던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결말로 끝나버린.

6. 결어: 무의식의 서사화, 혹은 유토피아를 다시 불러내기

레오니드의 화성 여행은 과연 진짜였을까? 또는 그가 목격한 유토피아는 한낱 착란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4장의 첫 머리에서 레오니드는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지구로 돌아왔고 현재는 베르네르 박사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적고 있다. 의사의 호의에 마음을 어느 정도 열게 된 그는 자신이 "살인자"이자 "배반자"이며 "전 인류가 자신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이상하게도 의사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185:180). 나중에 베르네르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수도에서 이미 완전히 발병한 상태로 발견되어 두 명의 낯선 사람들에 의해 운반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이렇게 덧붙인다.

> 물론 저는 당신과 논쟁할 생각은 없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믿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털어놓곤 하지요. 우울증 환자들의 기억은 망상작용을 일으켜서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187:181).

래를 구축하는 한, 그것의 텍스트적 지평은 역사의 실재에 맞부딪혀 그 자체의 한계점을 노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보그다노프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사회주의적 미래 유토피아의 정치적 한계를 소설적으로 드러낸 것일지 모른다.

레오니드의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따라온 독자는 베르네르의 이와 같은 태도가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지금까지의 서사를 사실적인 경험으로 공유했던 독자이기에 레오니드가 겪은 화성여행이 진실로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그러나 화성에서 그가 겪은 후반기의 행적은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며 피폐해진 정신상태를 보여주었고, 이 지점에 이르러 그가 과연 신뢰할 만한 정보전달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화성에서 그가 발병했던 이유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처럼, 현재 지구에서 그의 우울증의 원인은 혁명이 유발한 "고통스런 인상" 때문이라고 베르네르는 진단한다(190:184). 혁명이 초래한 급변적 사건들을 견딜 수 없던 그는 어느 순간 완전히 탈진해 버렸고, 이로 인해 정신적 착란과 망상에 빠졌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유토피아는 단지 과대망상증 환자의 공상이나 헛소리에 불과했는가?

안나에 대한 죄악감 때문에 그녀의 책무를 대신 짊어지다가 끝내 발광한 레오니드의 병명은 우울증이 확실하다. 사랑이라는 정념적 리비도의 전환관계에서 발생한 증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발병 과정에 관해 기술하는 수기의 저자라는 관점에서 이 서사를 읽는다면 다른 추론도 가능해 진다. 액자소설로서 『붉은 별』은 안쪽 이야기인 레오니드의 '수기'와 그것을 넘겨받아 공개한 베르네르 박사의 '프롤로그' 및 '에필로그'의 바깥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과 밖의 이야기는 완전히 대립적인 구도 위에 놓여 있어서 양립이 불가능하다. 베르네르는 레오니드를 우울증 환자로 진단했고, 따라서 그를 만나러 온 여성의사 네티를 화성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레오니드는 단지 혁명의 와중에 심한 부상을 입어 정신적인 착란과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일 뿐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기 기록자로서 레오니드는 우울증 환자인 자기에 관한 글을 쓴 게 아니다. 자기의 정서적 불안이나 감상을 나열한 게 아니라 장대한 '사회적 서사'를 구성해 놓은 것이다. 필시 지구로 귀환한 후 기록하기 시작한 그의 수기는 나름의 정합적인 체계와 구조,

서사적 인과성을 갖는 완결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수기에서 레오니드는 화성으로 떠난 계기, 여정과 도착, 만난 사람들과 견학한 장소들, 배우고 익힌 것들, 공식적 관계와 사적인 관계, 사건과 사고들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정교하게 서술했다. 어렴풋하게 슈레버의 자서전적 기록이 생각나게 만드는 대목들이다. 정신적 발병 이후 병원에서 『회상록』을 집필한 슈레버는 의사와 아버지에 대한 피해망상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우주론을 펼쳐냈다.[37] 우리 '정상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이야기는 몽땅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회상은 실상 하나의 '다른' 세계를 구축한 놀라운 상상력과 비전의 문학적 투사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잡설과 광상, 요설과 망상으로 가득하지만 슈레버의 글쓰기는 지금-여기를 벗어난 완전히 낯선 세계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사하기 때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슈레버의 새로운 세계를 아버지라는 척도, 즉 정상성의 기준으로부터 탈주하는 운동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무의식을 생산하는 글쓰기에 다름 아니다.[38] 그로써 슈레버의 편집증은 분열증으로 정정되어 명명되고, 착란과 오류의 '비정상'을 넘어서 '다르고' '낯선' 세계에 대한 탐험기로 규명되었다. 유사한 관점에서 우리는 레오니드를 정신병자/분열증자로 고쳐 읽고, 그의 기록을 유토피아에 대한 서사로 읽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39]

물론 우리는 레오니드의 이야기가 기존의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해체하는 '배반의 서사'일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자. 첫째, 레오니드의 실패가 함축하는 반(反)

37) D. P. 슈레버(2010), 김남시 역,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 서울: 자음과모음. 슈레버가 자신을 지칭하는 '신경병자'는 프로이트식 신경증이 아니라, 그의 환상 속에서 신경계의 다발이 등장하여 신과 소통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명명이다.

38) Deleuze et Guattari (1972), pp. 66-69.

39) 우울증, 즉 멜랑콜리와 정신병/분열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다. 맹정현(2015), 『멜랑꼴리의 검은 마술』, 서울: 책담.

유토피아적 서술은 레닌과 볼셰비키의 금욕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지도 이념에 근거한 유토피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미래 사회의 구조와 기능, 역할과 작용에 대한 완전한 청사진을 확보한 채, 다만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공정(工程)으로서의 유토피아 기획에 다르지 않다. 후일 안드레이 플라토노프가 『구덩이』(Kotlovan, 1930)에서 보여주었듯, 이러한 사회적 공정으로서의 유토피아는 실상 근대성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 보그다노프의 소설적 비판은 바로 이런 정치적 의식에 기대고 있다. 둘째, 신경증적 억압을 감추고 있는 화성의 유토피아는 지구의 복제품에 가까워 보인다. 여기서 사람들은 지구인과 똑같은 정념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낙원의 새로운 삶을 구가하기란 불가능할 성싶다. 성적 불만과 욕망의 억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화성은 실격 처리될 유토피아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레오니드의 수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상이라기보다 그가 발 딛고 선 지구의 삶, 혁명 이전의 현재적 생활상을 왜곡된 형식으로 반영하는 이미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느 쪽이든 유토피아라는 근대적 이상은 더 이상 지향할 만한 가치나 가능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의 착안점은 레오니드의 우울증이다. 대상을 향하지 못하는 리비도는 주체 자신을 향함으로써 파괴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끝내 또 다른 보상적 대상을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혹은 다른 대상을 통해 보상받길 거부함으로써 잃어버린 이상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충동을 가리킨다. 애도가 의식적인 차원으로 회수되는 반면, 우울증이 무의식의 저층에 잔류하여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불안스런 힘이란 사실은 이로부터 기인한다. 달리 말해, 우울증적 주체로서 레오니드는 잘 조직된 유토피아적 공정(레닌과 볼셰비키)에 동화되지 않고, 현재의 지구적 삶을 복제했을 뿐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사회상에도 섞이지 못한다. 그는 끝내 화성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하며, “두 세계의 경계”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자리로 만족해 할 정도다. 의식에

있어서나 무의식에 있어서나 그는 유토피아라는 관념에 저항하고 있고, 유토피아의 바깥을 향해 끊임없이 탈주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향한 강박으로부터 이탈하면서, 인류의 미래라는 사명과 임무에 얽매인 유토피아적 기획을 내던지면서, 그는 자신의 피해망상적인 무의식의 행로만을 고집스레 쫓아가고 있다. 그의 수기 전체는 그러한 무의식의 흐름을 기록해 놓은 텍스트라 할 만하다. 슈레버가 그랬듯, 레오니드 역시 인류와 미래라는 박해망상에 사로잡힌 채, 유토피아라는 유혹이자 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한 것이다. 유토피아의 바깥, 그곳은 대체 어디일까? 반(反)유토피아이자 비(非)유토피아로서, 탈(脫)유토피아의 충동이 도달한 그곳은 대체 어디인가? 무(無)가 아닌 그곳은 낙원의 마지막 장애물마저 폭파시킨 궁극의 유토피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장소는 아닐까?

'유토피아 외부의 유토피아'는 아마 더 이상 유토피아라 불릴 수 없는 어떤 미궁의 지점일 듯하다. 그것은 오직 레오니드의 글쓰기 같이 목적 없는 운동을 통해서만 잠깐 드러나는 실재에 다름 아니다. 즉 어디에도 정박되기를 거부하는 우울증적 서사화 과정으로서만 존재하는 유-토피아인 것이다. 최상인 동시에 어디에도 없는,[40] 그 역설적인 동시성을 담아내는 사건적 생성을 보그다노프는 문자로 남겨 놓으려 했다. 자신의 화려한 저술 경력에서 유일무이하게 빛나는 문학창작의 시간들은 그가 잠깐이나마, 무의식적 몽상 속에서나 엿보았을 미-래의 순간들이었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붉은 별』은 혁명을 향한 그의 열망을 배반하고, 역설적으로 성취시켜 주었던 무의식적 글쓰기의 결과였다고 해도 좋으리라. 1917년을 머지않아 바라보던 시점에서, 곧 근대성이 그 정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근대의 유토피아는 이미 파탄에 처해 버렸으나 그렇게 은밀하게 벌써 다시 불러내지고 있었다.

---

40) 'good-place'이자 'no-wherer'로서의 양가성이 유토피아의 본질이란 점은 모어의 시대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김영한(1983),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서울: 탐구당, p. 13.

참고문헌

【자 료】

A. 보그다노프(2016), 김수연 역, 『붉은 별. 어떤 유토피아』, 파주: 아고라.

A. Bogdanov (2014), *Praznik bessmertiia*, CPb.: Lenizdat.

_____ (2007), *Kratkii kurs ekonomicheskoi nauki*, M.: URSS.

_____ (1990), *Voprosy sotsializma. Raboty raznykh let,* M.: Izdatel'stvo politicheskoi literatury.

【논 저】

J. 그레이(2012), 『불멸화 위원회. 유령과 볼셰비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이상한 시도』, 이후.

김동혁(2015), 「소련 수리경제학파의 기원과 발생」, 『사총』 84.

김영한(1983),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서울: 탐구당.

V. 레닌(1988), 김민호 역,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백두.

맹정현(2015), 『멜랑꼴리의 검은 마술』, 서울: 책담.

L. 샤피로(1982), 양흥모 역, 『소련공산당사』, 서울: 문학예술사.

D. P. 슈레버(2010), 김남시 역,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 서울: 자음과모음.

R. 스타이츠(2008), 김남섭 역, 『러시아의 민중문화』, 서울: 한울5.

이득재(2017), 「『붉은 별』에 나타난 보그다노프의 사회주의 이론」, 『중소연구』 40(4).

임철규(2009), 『왜 유토피아인가』, 서울: 한길사.

F. 제임슨(2015), 이경덕 외 역, 『정치적 무의식: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서사』, 서울: 민음사.

최진석(2017), 「프롤레타리아 문화 논쟁과 마음의 정치학: 보그다노프 문화혁명론의 재구성」, 박종소 엮음, 『다시 돌아보는 러시아 혁명 100년 2』, 서울: 문학과지성사.

_____(2015), 「트로츠키와 문화정치학의 문제: 무의식과 '새로운 인간'을 둘러싼 투쟁」, 『마르크스주의 연구』 12(4).

_____(2013), 「혁명기 러시아의 정신분석 운동」, 『외국학연구』 24.

N. 콘(1993), 김승환 역, 『천년왕국운동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N. 크루프스카야(1986), 김자동 역, 『레닌의 회상』, 서울: 일월서각.
N. Berdiaev (1991), *Samopoznanie. Opyt filosofskoi avtobiografii*, M.: Kniga.
J. Biggart et al. (ed)(1998), *Alexander Bogdanov and the Origins of Systems Thinking in Russia*, Aldershot: Ashgate.
G. Bordjugov (ed)(1995), *Neizvestnyi Bogdanov v 3-kh knigakh*, M.: AIRO-XX.
G. Deleuze et F. Guattari (1972), *L'Anti-Œdipe: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G. G. Elizavetina (ed)(1986), *Revoliutsionnye demokraty i russkaia literatura XIX veka*, M.: Nauka.
J. Freeborn (1982), *The Russian Revolutionary Novel. Turgenev to Pasterna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 Freud (1958), "Psycho-Analytic Notes on An Autobiographical Account of A Case of Paranoia (1911),"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II, J. Strachey (ed), London: The Hogarth Press.
_____ (1957), "Mourning and Melancholia (1917),"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IV, J. Strachey(ed), London: The Hogarth Press.
V. Lenin (1946), "Retsenziia," *Sochineniia*, T. 4, M.: OGIZ.
L. Mally (1990), *Culture of the Future. The Proletkult Movement in Revolutionary Russi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 Ia. Priiman (ed)(1982), *Istoriia russkoi literatury*, T. 3, Leningrad: Nauka.
R. Service (2000), *Lenin: A Biography*, London: Macmillan.
V. Shestakov (ed)(1990), *Vecher v 2217 godu*, M.: Progress.
Z. Sochor (1988), *Revolution and Culture. The Bogdanov-Lenin Controvers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R. Stites (1989), *Revolutionary Dreams. Utopian Vision and Experimental Life in the Russian Revolu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84), "Fantasy and Revolution. Alexander Bogdanov and the Origins of Bolshevik Science Fiction," Alexander Bogdanov, *Red Star*, trans. Ch. Rougl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17년 10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1월 9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3일

Abstract

Revolution, or the Utopia Betrayed:

The Political Unconscious in A. Bogdanov's *Red Star*

Choi, Jin Seok*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novel *Red Star*, which was written by Alexander Bogdanov, the famous philosopher, activist, politico-economist, psychologist etc. in the period of Russian Revolution. Generally, his novel was known as one of the Utopian literary works, which represented the Bolshevik's Socio-Democratic Idea. But we cannot agree with this point of view, because the novel has an unusual narrative structure by comparison with another utopian literary genres. Leonid, the hero in the novel left to the Mars with the purpose of studying the highly developed science and technology in that planet. But his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could not support this mission, finally he suffered from severe depression, Melancholia. At this moment, I would try to interpretate this novel from a different standpoint, in other words, from the concealed political dispute between Bogdanov and Lenin. I believe that Bogdanov wanted to argue with Lenin and Bolsheviks, because they had a bitter dispute at that time. Maybe Bogdanov intended to take a revenge on his political enemies. However, his plan succeeded only in half, and we have to investigate the true reason for this half success. That's why we would re-read the *Red Star* in the light of Political Unconscious.

* Lecturer, School of Film, TV and Multimedi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